

무더위 속 전력난 부추기는 '스마트 도서관'

일 평균 이용자 7명 수준 불구 에어컨은 24시간 '썹썹' 폭염 영향 전력수요량 ↑·에너지 ↓... '블랙아웃' 우려 한전, 냉방 계획 필요 제언...서구 "대안 마련 후 조치"

광주·전남에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량이 늘고 있지만, 광주 서구 '스마트 도서관'이 이용자 수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더불어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시설이 일체 '냉방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관내에 '스마트 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상무역 스마트 도서관'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관내 1호 스마트 도서관으로 개소했다.

서구는 개소 취지에 맞게 도서 구비와 반납, 시설 관리 등을 위해 1일 1회 정도 도서관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께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자 부스 내 에어컨을 가동했다. 그러나 별도의 휴동 계획이 없어 에어컨은 지난 9일까지만 24시간 내내 가동

되고 있는 상태다.

서구가 집계한 지난 6월 상무역 스마트 도서관 이용자 수는 209명, 일별 이용자는 7명 수준이다.

또 '스마트 도서관'은 특성상 책을 읽고 가는 공간이 아닌, 도서 대출과 반납을 위한 공간이라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은 5-10분 남짓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무역 스마트 도서관'과 '풍암동 스마트 도서관' 내 에어컨 모두 일체의 냉방계획 없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전력수요량도 크게 늘고,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전력 감축에 나설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지난 1일 발표된 폭염특보가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도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전남에서 꾸준히 관측됨에 따라, 전력수요량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광주 서구 상무역 4번 출구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 24시간 열려 있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냉방 계획'이 없어 내부 에어컨은 지난 5월말까지만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사진은 스마트 도서관 바깥(왼쪽)과 내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광주 서구 상무역 4번 출구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 24시간 열려 있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냉방 계획'이 없어 내부 에어컨은 지난 5월말까지만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사진은 스마트 도서관 바깥(왼쪽)과 내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전력거래소가 지난 1일 집계한 전력수요량은 8만5500MW였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일 전력수요량은 8만1천174MW로 늘었다. 4일과 5일 전력수요량도 각각 8만15천886MW, 8만16천500MW로 집계되면서 예비전력도 내려가는 추세다.

세부 예비전력과 예비율은 ▲3일 1만9천657MW (24.2%) ▲4일 1만5천924MW (18.5%) ▲5일 1만5천761MW (18.2%)를 보이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

까지 전력수요량은 88.0-91.0GW로, 예비력은 9.1-11.7GW로 내다보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이 지속되면서 언제 전력량이 폭증할지 몰라 '블랙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블랙아웃이란 '대정전 사태'를 일컫는 말로, 실제 지난 7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으로 해당 아파트 200여 가구는 약

2시간 동안, 인접한 아파트 단지 2곳 700여 가구는 30분 가량 전력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열대야 속에서 냉방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감축과 더불어 체계적인 냉방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냉방을 계획 없이 가동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일정 시간 에어컨 가동 후 얼마간 휴

동하는 등 실정에 맞는 냉방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관내 스마트 도서관 에어컨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여름철 무더위로 기기가 오류를 겪었던 적도 있고, 습기로 인한 도서 변질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종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효율적인 냉방 운영을 위해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열질환 60%가 50대 이상...실외작업 주의

광주·전남 최근 23명 발생... "건강수칙 준수 당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50대 이상이 온열질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8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 중 50대 이상이 59.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0-9세 0.2%, 10-19세 2.9%, 20-29세 11.4%, 30-39세 11.1%, 40-49세 14.8%, 50-59세 21.5%, 60-69세 18.6%, 70-79세 10.6%, 80세 이상 10.6%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의 증상으로는 열탈진이 50.6% (666명)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열사병 20.3% (267명), 열경련 18.4% (242명), 열실신 7.8% (103명) 등이 뒤따랐다.

광주·전남에서는 폭염경보 등이 내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7명, 전남에서는 1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실외 작업

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야외 작업자에 대한 폭염 안전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92명으로 실외 작업장 발생 사례가 34명 (37%)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이 26명 (28.3%)으로 집계됐다.

그 외 실내 작업장, 길가, 자택, 주거지 주변, 강가·해변 등에서도 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손상과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이같은 증상을 방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의료진들은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할 것과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할 것,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것 등을 제언했다.

또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와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과음을 피해야 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온열질환 발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한빛 4호기 공극 보수공사 규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위한 모감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일 영광 핵 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4호기 콘크리트 공극 보수 공사 모형 시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원전 측은 이날 영광군 한빛 2발전소 취수구 인근에서 한빛4호기 격납건물 주중기배관 하부 공극 실증시험 현장 시연회를 열었다.

이는 주중기 배관 하부에서 발견된 깊이 157cm의 최대 공극 모형을 사용해 그라우트 혼합, 주입, 배출 등의 보수과 공극 보수 공사 모형 시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빛원전현안대책협의회(대책협의회)도 오는 12일 오후 2시 영광군의회에서 한빛원전 4호기 구조건전성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대책협의회는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3차평가와 군민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7대 현안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에 방정진 과정에서 깊이 157cm 공극, 철관부식 등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구매자 나타나면 흥친다'...교회 가전제품 털이 검거

교회 가전제품 사진을 찍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흥친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약간 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26)씨가 전날 검거됐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심야 시간대를 틈타 문이 열린 교회에 잠입 후 가전제품 사진을 찍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다시 교회에 침입해 물건을 흥친 뒤 퇴환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흥친 물건을 따로 보관하기 번거롭고 언제 처분될지 모르니 이같은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일 광주 북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실 내 공기청정기(200만원 상당)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 파악과 더불어 도난당한 물품이 중고거래 됐거나 짐작하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졌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가 중고거래 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용의자가 올린 판매 게시글 중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는 물품들이 있는 점을 눈여겨 본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거라 판단, 교회 측과 함께 용의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윽고 지난 9일 정오께 다시 교회에 침입한 A씨가 스피커(300만원 상당)를 들고 나오자 교회 측은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